



## ■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라

문법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딱딱하다, 어렵다, 외워야 한다’ 등의 단어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연상되는 말들은 모두 부정적인 것들이며 심지어 문법 교육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된 이유를 따져 보면 문법 교육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고 그 책임에서 문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문법을 쉽게 설명한 제대로 된 문법 개념서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글쓴이들이 힘을 합하여 이 책을 출판한 지 벌써 십 년이 지났다. 집필하면서, 달아나려고만 하는 학생들을 친절하고 자상하게 우리말 문법의 샘에 모이게 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전히 학습자들은 문법을 어려워하고 정답만을 찾는 학습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집필한 이들은 모두 대학에서 오랫동안 문법을 연구하고 가르쳐 온 문법 전공자들이다. 우리는 국어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법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이번에 개정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

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 점이다. 단편적인 암기식 지식에 대한 평가보다는 탐구 학습의 개념이 적용된 문항의 개발에 치중하였다.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비중을 두면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대한 기반 지식을 철저히 할 때 다음 단계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고등 사고력의 구성 요소인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문법 과목에 대한 오해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문법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과목이다. 문법 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영역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국어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고 국어 의식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인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이 남긴 "한글이 목숨이다."라는 말씀을 경건하게 가슴에 새겨볼 일이다. 이 책은 우리 말과 글에 담겨 있는 규칙과 질서를 찾아내어 그 원리를 밝힘으로써, 학습자들이 문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이번 개정판에는 교육 과정 변화의 추이에 맞추어 실전 문제를 구성하고,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문법에 대한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문법에 흥미를 갖고 공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저자들의 생각을 담아  
김홍범 씀 //



# 차례

## I

### 문장

유현경(01), 이정택(02)

<b>01</b>	<b>문장의 구성</b> .....	18	<b>02</b>	<b>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b> .....	60
	① <b>문장의 구성 요소</b> .....	20		① <b>문법 요소</b> .....	62
	1. 문장의 개념과 기본 골격			1. 높임 표현	
	2. 문장의 구성 단위			2. 종결 표현	
	② <b>문장의 성분</b> .....	24		3. 시간 표현	
	1. 문장 성분의 개념과 종류			4. 피동 표현	
	2. 문장 성분의 성립			5. 사동 표현	
	③ <b>문장의 짜임</b> .....	39		6. 부정 표현	
	1. 문장의 짜임새			7. 인용 표현	
	2. 안은문장			② <b>문장의 의미</b> .....	98
	3. 이어진문장			1. 합성성의 원리	
	<b>실전 문제</b> .....	53		2. 문장 간의 의미 관계	
				<b>실전 문제</b> .....	102

# II

## 단어 김홍범

<b>01 품사</b> .....	112	<b>03 단어의 의미</b> .....	176
<b>①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b> .....	114	<b>① 단어 의미의 종류</b> .....	178
<b>② 품사의 종류와 특성</b> .....	115	1. 개념적 의미	
1. 체언		2. 연상적 의미	
2. 용언		3. 주제적 의미	
3. 수식언		<b>② 단어의 의미 관계</b> .....	182
4. 관계언		1. 유의 관계	
5. 독립언		2. 반의 관계	
<b>실전 문제</b> .....	145	3. 상하 관계	
		4. 동음이의 관계	
		5. 다의 관계	
<b>02 단어의 형성</b> .....	154	<b>③ 단어의 의미 변화</b> .....	189
<b>① 형태소와 단어</b> .....	156	1. 의미 변화의 원인	
1.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		2. 의미 변화의 유형	
2. 형태소의 종류		<b>실전 문제</b> .....	193
3. 형태소와 단어의 차이			
<b>② 단어의 구성 요소</b> .....	159		
1. 어근과 접사			
<b>③ 단어 형성법</b> .....	163		
1. 단일어와 복합어			
2. 합성어			
3. 파생어			
<b>실전 문제</b> .....	170		



# III

## 음운 성낙수

<b>01</b> 음운과 음운 체계 .....	200
<b>①</b> 음성과 음운 .....	202
1. 음성	
2. 음운	
<b>②</b> 국어의 음운 체계 .....	206
1. 국어의 음운	
2. 국어의 음절	
실전 문제 .....	218

<b>02</b> 음운의 변동 .....	224
<b>①</b> 음운 변동의 개념 .....	226
<b>②</b> 음운 변동의 종류 .....	227
1. 교체	
2. 축약	
3. 탈락	
4. 첨가	
실전 문제 .....	244

# IV | 담화 이병규

## 01 담화의 구성과 기능 ..... 254

① 담화의 개념 ..... 256

② 담화의 구성 단위와 요소 ..... 257

1. 발화와 담화

2. 발화 행위

3. 담화의 구성 요소

③ 담화의 기능과 유형 ..... 261

1. 담화의 기능

2. 담화의 유형

실전 문제 ..... 264

## 02 담화의 구조와 표현 ..... 266

① 담화의 짜임 ..... 268

② 담화의 특성 ..... 269

1. 응집성

2. 응결성

3. 의도성

4. 수용성

5. 정보성

6. 상황성

7. 상호 텍스트성

③ 담화의 표현 ..... 276

1. 지시 표현

2. 높임 표현

3. 생략 표현

4. 심리적 태도 표현

실전 문제 ..... 280



# V | **어문 규범** 박동근

## 01 표준에 맞게 말하기 ..... 284

### ① 표준어의 개념 및 규정 ..... 286

1. 표준어의 개념
2. 표준어의 역사
3. 국어의 표준어 사정 원칙
4.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선정
5.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선정

### ② 표준 발음법 ..... 293

1. 표준 발음법의 원칙
2. 자음과 모음
3. 받침의 발음
4. 음의 동화
5. 경음화
6. 음의 첨가

### 실전 문제 ..... 299

## 02 어법에 맞게 쓰기 ..... 302

### ① 한글 맞춤법의 원칙과

#### 주요 규정 ..... 304

1. 한글 맞춤법의 원칙
2. 자모
3. 소리에 관한 것
4. 형태에 관한 것
5. 그 밖의 것
6. 구별하여 적는 말
7. 띄어쓰기

### ② 외래어 표기법 ..... 313

1. 표기의 원칙
2. 주요 표기 세칙(영어)
3.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4.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 ③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318

1. 표기의 기본 원칙
2. 표기 일람
3. 표기상의 유의점
4. 이름의 표기
5. 행정 구역 표기

### 실전 문제 ..... 321

## 03 좋은 표현법 사용하기 ..... 326

### ① 문장 다듬기 ..... 328

1. 올바른 단어 사용하기
2. 문장 성분 바로 쓰기
3.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

### ② 표준 화법 알기 ..... 335

1. 가정에서의 호칭 · 지칭
2. 사회(직장)에서의 호칭 · 지칭
3. 경어법
4. 일상생활의 인사말
5. 소개하는 말

### ③ 문장 부호 알기 ..... 339

1. 문장 부호의 개념과 필요성
2. 문장 부호의 종류와 쓰임새

### 실전 문제 ..... 343

# VI | 국어사 성낙수

## 01 한글 창제와 문자

생활의 변화 ..... 348

① 우리말에 안성맞춤, 한글 ..... 350

1. 한글의 창제
2. 한글 창제의 원리 및 당대 표기법
3. 한글의 가치와 발전 방향

②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 ..... 361

1. 차자 표기의 의미와 방법
2. 차자 표기의 종류
3. 차자 표기 방식의 소멸

실전 문제 ..... 367

## 02 우리말의 변천 과정 ..... 370

① 우리말의 기원과 형성 ..... 372

② 음운의 변천 과정 ..... 373

1. 자음 체계의 변화
2. 단모음 체계의 변화
3. 우리말 성조의 변화
4. 음운 현상의 변화

③ 문법의 변천 과정 ..... 378

1. 고대 국어의 문법적 특징
2.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
3. 근대 국어의 문법적 특징

④ 어휘의 변천 과정 ..... 388

1. 고대 국어 어휘의 변천
2. 중세 국어 어휘의 변천
3. 근대 국어 어휘의 변천
4. 현대 국어 어휘의 변천

실전 문제 ..... 391

정답과 해설 ..... 396





# 찾아보기

## ㄱ

<b>ㄱ</b>	
가변어	114
가산 명사	115
가획의 원리	355
각자 병서	352
간접 높임	64, 332
간접 발화	258, 259
간접 인용	46, 95
감정 감탄사	143
감탄문	46, 67
감탄사	37
감탄형 어미	128
강세	180
개념적 의미	178
객체 높임법	62, 65
거성	358
거센소리되기	226
격식체	62
격조사	25, 31
겹문장	39
겹받침	238
경구개음	206
경어법	62
경음화	226, 230
고유 명사	115, 305
고유어	120
공용 체언	385
공용어	286
과거 시제	74
관계 관형사절	41
관계언	138
관용	236
관형격 조사	33
관형사	131
관형사형	132
관형사형 어미	41, 76, 133
관형어	24, 33

관형사절	40, 41
교체	226, 227
구	21
구개음화	226, 229
구결	365
구속 형태소	156
구조적 중의성	333
굴절 접사	159
규칙 활용	126
-기 명사절	41
긴 관형사절	42
긴소리	214
끝소리 규칙	226, 227

## ㄴ

<b>ㄴ</b>	
ㄴ 첨가	226
-내	380
높임 표현	62, 276
누	380
-는	41
-는 것	40
-는 /-ㄴ-	77
능격 동사	28

## ㄷ

<b>ㄷ</b>	
ㄷ 불규칙	127
단모음	210, 293
단어	156
단위성 의존 명사	116
단일어	163
담화	256
대등 합성어	163
대등적 연결 어미	129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40, 49
대명사	118
대상 활용	381
대용	270
대표음	227

-다-	75
-던	76
더	380
독립 성분	24, 37
독립어	24, 37
독립언	143
동격 관형사절	42
동국정운식 표기	358
동명사형 어미	378
동사	22, 123
동음이의 관계	186
동작상	79
동화	228
된소리	206, 207
된소리되기	226
두음 법칙	226, 230
따옴표	340
띄어쓰기	310

## ㄹ

<b>ㄹ</b>	
ㄹ 탈락	239
ㄹ 불규칙	127
로마자	318
ㄹ 불규칙	127

## ㅁ

<b>ㅁ</b>	
마찰음	207
마침표	339
말다	90
말소리	178
명령문	70
명령형 어미	128
명사	115
명사 파생 접사	380
명사절	40
명사형 어미	26, 40
모음	210
모음 축약	226

모음 탈락	226
모음 조화	289, 372
모음추이설	375
목적격 조사	29
목적어	24, 29
무정 명사	115
문법 형태소	157
문장	20
문장 부사	134
문장 부사어	35
문장 부호	46, 339
문장 성분	24, 330
문장 종류	71
문장 형식	21
문장의 의미	98
문장의 확대	39
미래 시제	74, 78
미지칭 대명사	118

ㅂ

ㅂ 불규칙	127
바른 문장	328
반모음	211
반모음화	236
반사적 의미	179
반의 관계	99
반절법	354
받침소리	294
발음 기관	202
발음 변화	287, 291
발화	214
발화 행위	257
발화시	74
변별적 기능	204
변이음	204
보어	24, 30, 59
보조 용언	27, 124
보조사	25, 138
보조적 연결 어미	129
보통 명사	115

복수 표준어	291
복수형	332
복합어	163
본용언	124
부사	133
부사 파생	379
부사격 조사	34
부사어	34
부사절	40, 43
부사형	133
부사형 전성 어미	129
부속 성분	33, 39
부정 부사	134
부정 표현	90
부정문	90
부정칭 대명사	118
분리성	165
분철 표기	374
불규칙 활용	126
불변어	114
불임표	319
비격식체	62, 63
비음	207
비음동화	226
비음화	226
비통사적 합성어	164, 377

ㅅ

ㅅ 불규칙	127
사건시	74
사동 표현	87, 332
사동, 사동문	86
사동주	86
사성점	358
사어(死語)	290
사회적 의미	178
상대 높임법	62
상대 시제	74
상보적 분포	204
상성	358

상징 부사	134
상형의 원리	356
상호 텍스트성	273
상황성	273
새말(신조어)	164
생략 표현	277
서수사	120
서술부	21
서술어	24
서술절	40, 45
서울말	286
선어말 어미	25, 74
선택 제약	28
설명 의문문	383
성분 갖추기	331
성분 부사	134
성분 부사어	34
성분 없애기	331
성상 관형사	131
성상 부사	134
성상 형용사	123
성조	358
소개	337
소형문	20
속음	311
수	288
수 관형사	131
수사	120
수식언	131
수용성	272
순음	206
섬표	339
시간 표현	74
시제	43, 74
실질 형태소	157
심리 형용사	31

아니다	21
-아서/-어서	49

# I



## 문장

01

문장의 구성

02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

👉 단원 미리 보기

## 문장



## 문법 요소



# 이 | 문장의 구성



1. 문장의 개념과 기본 골격
2. 문장의 구성 단위



1. 문장 성분의 개념과 종류
2. 문장 성분의 성립



1. 문장의 짜임새
2. 안은문장
3. 이어진문장

한글문법표

-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 문장의 성분에 따라 문장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 문장의 구조에 따른 문장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장의 짜임새와 여러 가지 문법 단위에 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장은 언어의 가장 핵심적인 단위로서 단어, 어절, 구, 절 등의 크고 작은 문법 단위들로 이루어진다. 국어의 문장 성분과 문장의 종류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국어의 문장 구조를 알 수 있도록 한다.



# 문장의 구성 요소

## 1. 문장의 개념과 기본 골격

### (1) 문장(文章)의 개념

文: 글씨(문), 후: 글씨(장)

문장이란 생각이나 느낌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다.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을 문장의 형식으로 나타낼 때는 '주어'나 '서술어'와 같은 반드시 있어야 할 성분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주어나 서술어와 같은 성분을 완전하게 갖추지 않은 문장도 있다.

- (가) 불이야!
- (나) 아이고!
- (다) 그래?

결국 문장은 의미상으로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형식상으로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야 한다.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는 일상 대화의 경우는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특징 어둡게, 문자로 표기할 경우는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마침표로 나타난다. (가)~(다)를 문장으로 보는 이유도 의미상으로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있고 형식상으로도 문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표지인 느낌표(!)와 물음표(?)가 있기 때문이다. (가)~(다)와 같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를 완전하게 갖고 있지 않은 문장을 소형문(minor sentence)이라 부르기도 한다. 소형문은 '여기가 불이야!'와 같이 주어를 넣으면 문장의 성분들이 생략된 문장과 달리 이상한 문장이 된다.

#### ● 소형문(小型文)

'너 어디 가니?'에 대한 대답으로 '학교'라고 했을 때 '학교'는 '(나는) 학교(에) (간다.)'의 괄호 부분을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소형문으로 볼 수 없다.

### (2) 문장의 기본 골격

하나의 문장은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어 문장은 다음의 세 가지 골격을 가지고 있다.

기본 골격	용례
무엇이 어찌한다.(동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가 웃는다.</li> <li>• 지연이가 잔다.</li> </ul>
무엇이 어떠하다.(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이 아름답다.</li> <li>• 하늘이 맑다.</li> </ul>
무엇이 무엇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수가 중학생이다.</li> <li>• 선희가 선생님이다.</li> </ul>

이 세 가지 기본 골격은 서술어의 성질에 따라 나는 것으로 ‘어찌한다’는 동사, ‘어떠하다’는 형용사, ‘무엇이다’는 ‘체언+서술격 조사’에 해당된다. 이 세 가지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장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본 골격	구성	용례
무엇이 어찌한다.(동작)	무엇이 어찌한다.	• 아이가 웃는다. • 지연이가 잔다.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	• 아이가 밥을 먹는다. • 수지가 창난감을 산다.
	무엇이 무엇이 어찌한다.	• 철수가 중학생이 된다. • 구름이 비가 된다.
무엇이 어떠한다.(상태)	무엇이 어떠한다.	• 꽃이 아름답다. • 하늘이 맑다.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	• 철수가 중학생이 아니다. • 그는 바보가 아니다.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무엇이다.	• 철수가 중학생이다. • 선희가 선생님이다.

● 문장의 여러 형식

문장은 왼쪽의 표에 제시된 여섯 가지 형식보다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철수는 영희를 아내로 삼았다.’에서 ‘무엇이 무엇을 무엇으로 어찌한다.’와 같은 형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장의 형식은 다음에 설명할 문장 성분 중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등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위로 한정한다.

● ‘아니다’ 구문의 유형

‘이다’는 현재 학교 문법에서 서술격 조사로 분류되어 있지만 동사와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용언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아니다’는 ‘이다’의 반의어이므로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는 의미적으로 볼 때는 ‘무엇이 무엇이다’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품사의 측면에서 보면 ‘아니다’는 형용사이므로, ‘무엇이 어떠한다’에 가깝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술어가 형용사인 문장의 한 가지로 묶어 보았다.

● 구의 종류

- 명사구  
예 저 새 공책은 철수 거야.
- 동사구  
예 꽃이 활짝 피었다.
- 형용사구  
예 순이는 매우 친절하다.
- 관형사구  
예 저 흰 옷이 내 것이다.
- 부사구  
예 민수는 아주 빨리 댄다.

● 주어부와 서술부

‘주어부’는 ‘주부’라고도 하며, 행동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다. ‘서술부’는 ‘술부’라고도 하며 주어부의 행동, 동작, 상태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 2. 문장의 구성 단위

### (1) 어절(語節)

語: 말뭉치, 어, 절: 마디 (절)

어절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로서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한다. 조사와 어미 등 문법적인 요소는 앞에 오는 단어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룬다.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 (2) 구(句)

句: 구절 (구)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단위를 구라 한다. 하지만 구를 이루는 요소들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저 하늘이 매우 높다.				문장
저 하늘이		매우 높다		구
저	하늘이	매우	높다	어절

‘저 하늘이 매우 높다.’라는 문장은 먼저 ‘저 하늘이’와 ‘매우 높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각각 주어부(主語部)와 서술부(敍述部)라 한다. 이때 ‘저 하늘이’와, ‘매우 높다’는 두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이루는 요소들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므로 ‘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를 이루는 ‘저’, ‘하늘이’, ‘매우’, ‘높다’는 어절이 된다.

### (3) 절(節)

節: 마디 (절)

절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문법 단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구와 비슷하지만, 절을 이루는 요소들이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구와 구별된다. 또한 절은 더 큰 문장 안에 들어가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문장과 구별된다.

(가)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나) 나는 철수가 범인임을 알았다.

(가)에서 ‘그 사실’은 ‘그’와 ‘사실’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구이다. 그러나 (나)의 ‘철수가 범인임’은 주어인 ‘철수가’와 서술어인 ‘범인이-’가 있으므로 절이 된다. 또한 ‘철수가 범인임’은 그 안에 주어와 서술어를 다 갖추었지만, 전체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였으므로 문장이 아니라 절이다.

### “알쏭달쏭” 질문 있어요!



‘얼굴이 늙었다.’의 ‘늙다’는 ‘어떠하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왜 동사로 분류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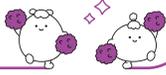
‘무엇이 어떠하다’의 ‘어떠하다’에 해당되는 형용사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국어에서 ‘상태’를 나타낸다고 해서 모두 형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가르는 기준은 의미가 아니라 활용의 방식입니다. 동사 어간에는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 ‘-다 / -는다’가 붙을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어미 ‘-다 / -는다’가 붙지 않고 ‘-다’가 결합됩니다. ‘젊다’의 현재 시제는 ‘젊는다’가 아니라 ‘젊다’이지만 ‘늙다’는 ‘늙는다’가 가능하므로 ‘젊다’는 형용사이고 ‘늙다’는 동사가 됩니다. ‘지치다, 야위다, 닳다’ 등도 상태를 나타내지만 ‘-다 / -는다’와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입니다.



‘빨간 꽃이 피었다.’의 ‘빨간 꽃’과 ‘나는 헌 책이 좋다.’의 ‘헌 책’은 구인가요?

구와 절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우는 아이가 많다.’에서 ‘우는 아이’는 ‘아이가 울-’에서 온 것으로 보아 절로 보고 있어요. ‘빨간 꽃이 피었다.’의 ‘빨간 꽃’도 ‘꽃이 빨강-’에서 온 것으로 보아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옷’이 ‘옷이 새다’가 아닌듯 ‘헌 책’의 ‘헌’은 ‘책이 헐다’에서 온 것이 아니고 관형사 ‘헌’으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로 볼 수 없습니다.





# 실전 문제

1 밑줄 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은 것은?

보기

윤기는 수진이와 1월에 결혼했다.

- ①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셨다.
- ② 우리 국민은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았다.
- ③ 혜윤이는 선우와 함께 아침에 공원에서 천천히 걸었다.
- ④ 우리는 새벽 시간에 다 함께 허둥지둥 공항으로 향했다.
- ⑤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레슬링을 올림픽 종목에 넣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관형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철수: 저기 ㉠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영수: ㉡ 파란 외투 입은 사람? ㉢ 시골 풍경을 찾아다니신다는 분 있잖아.

철수: 아……. ㉣ 저 두 새 집을 관리하시지?

영수: 응. ㉤ 저 사람이 관리한 집은 마치 동화 속의 화원 같더군.

- ① ㉠과 ㉡을 비교해 보니 부속 성분인 관형어의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군.
- ② ㉢을 보니 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도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을 보니 관형어가 지시, 수, 성질의 순으로 여러 개가 겹쳐 나올 때는 일정한 순서가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을 보면 관형어가 겹쳐 나올 때는 바로 뒤의 관형어를 수식함을 알 수 있어.
- ⑤ ㉤을 보니 하나의 문장이 더 큰 문장 속에서 관형어로 쓰일 수 있네.

### 3 다음에서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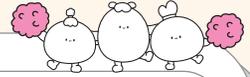
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다. 관형어는 관형사 단독으로 이루어지거나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 성립되기도 한다. 또한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다음 이에 다시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성립될 수 있고, 동사나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되어 체언이 관형어로 쓰일 수도 있다. <조건> 중 세 가지를 만족하도록 주어진 문장을 수정해 보자.

조건

- ㉠ 체언을 관형어로 쓴 문장
- ㉡ 관형사를 관형어로 쓴 문장
- ㉢ '체언 + 관형격 조사'를 관형어로 쓴 문장
- ㉣ '체언 + '이다'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를 관형어로 쓴 문장
- ㉤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를 관형어로 쓴 문장

	조건	수정 전		수정 후
①	㉠, ㉡, ㉤	집은 100년 전에 세워졌다.	⇒	저 두 낡은 집은 100년 전에 세워졌다.
②	㉠, ㉢, ㉤	그는 고민에 빠져 있었다.	⇒	어제 오후에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③	㉠, ㉣, ㉤	외솔 선생은 민족의 스승이다.	⇒	독립운동가인 외솔 선생은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다.
④	㉡, ㉢, ㉤	교훈은 말을 신중히 하라는 것이다.	⇒	그 속담 속의 교훈은 말을 신중히 하라는 것이다.
⑤	㉢, ㉣, ㉤	무영탑은 통일 신라 시대에 세워졌다.	⇒	슬픈 사연을 간직한 불국사의 무영탑은 통일 신라 시대에 세워졌다.

# 생각 키우기



🔑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서로 다른 문장 성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토론해 보자.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서로 다른 문장 성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문법에서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성분을 말하는데, 학교 문법에서 보어를 규정한 이유는 보어를 제외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춘천에서 산다.'나 '나는 동생과 닮았다.'에서 밑줄 친 부분이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어가 문장에서 필수적 성분인 것처럼 필수적 부사어도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단지 보격 조사 '이/가'가 아닌 '에서'나 '와/과' 등의 부사격 조사가 쓰인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춘천에서', '동생과' 등을 필수적 부사어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부사어는 부속 성분으로, 관형어와 함께 수의적 성분입니다. 필수적 부사어라는 말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어 # 필수적 부사어

145 ♥ ▼ ▾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다른 문장 성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어와 필수적 부사어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춘천에서 산다.'나 '나는 동생과 닮았다.'와 같은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지만 '나는 춘천에서 직장에 다니다.', '나는 동생과 영화를 보았다.'에서 밑줄 친 부분은 수의적 성분입니다. 만약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와 구분하지 않는다면 앞의 두 문장에서의 '춘천에서'와 '동생과'는 보어로 보고, 뒤의 두 문장에서의 '춘천에서'와 '동생과'는 부사어로 보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의미를 가진 '춘천에서'와 '동생과'를 문장에 따라 다른 성분으로 보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필수적 부사어와 보어는 구분하여 별개의 문장 성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 보어 # 필수적 부사어

145 ♥ ▼ ▾



# I. 문장

## 이 | 문장의 구성

### 1 | 문장의 구성 요소

####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3쪽

1 ②

2 (1) • 주어부: 그 꽃은 / • 서술부: 매우 붉다 / • 어절: 그, 꽃은, 매우, 붉다 / • 구: 그 꽃은, 매우 붉다 / • 절: 없음

(2) • 주어부: 영희는 / • 서술부: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 • 어절: 영희는,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 • 구: 중학교 선생님이 / • 절: 없음

(3) • 주어부: 철수는 / • 서술부: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 기다렸다 / • 어절: 철수는,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 기다렸다 / • 구: 집에 오시기를 / • 절: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

1 <보기 1>은 꽃이 '아름답다', '하늘이 푸르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므로, '무엇이 어떠한다.' 유형의 문장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은 '좋아하다'라는 동사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이므로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의 문장이다. '좋아하다'와 의미가 비슷한 형용사 '좋다'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의 서술어로 쓰인 '크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사용되는 용언이지만 ㉠은 동사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무엇이 어찌한다.'의 유형에 속한다.

㉢은 명사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된 '무엇이 무엇이다.' 유형의 문장이다.

2 (1)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한다. 구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한 덩이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 꽃이'와 '매우 붉다'가 구이다. 절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문법 단위로 기능하지만 절을 이루는 요소들이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절로 쓰인 요소는 없다.

(2) '중학교 선생님이'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한 덩이로 기능하는 구이며, '중학교'와 '선생님'이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절로 볼 수 없다.

(3)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은 주어인 '어머니가'와 서술어인 '집에 오시-'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면서 문장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절로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이라는 절 안에 구인 '집에 오시기를'이 들어가 있다.

### 2 | 문장의 성분

#### 개념 확인 문제

본문 32쪽

1 (1) 부사어 (2) 목적어 (3) 독립어 (4) 보어 (5) 서술어

2 (1) 주어 (2) 목적어 (3) 주어 (4) 주어 (5) 서술어 (6) 보어

3 (1) 주어 / 한 자리 서술어

(2) 주어, 보어 / 두 자리 서술어

(3) 주어, 부사어 / 두 자리 서술어

(4) 주어, 목적어 / 두 자리 서술어

(5) 주어, 부사어, 목적어 / 세 자리 서술어

2 (1) '밥이'는 한 자리 서술어 '되다'의 주어로 볼 수 있다. '밥이 죽이 되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 '되다' 구문이므로 이때의 '밥이'는 주어, '죽이'는 보어가 된다.

(2) '영희를'은 목적격 조사 '을/를'을 취하고 있으므로 목적어로 볼 수 있다.

(3) 주격 조사는 생략되었지만 서술어인 '가셨니'의 동작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버지'이므로 주어이다.

(4) 문장의 서술어가 되는 형용사 '크다'의 주어는 '손'이다. 즉 '크다'는 어머니가 아니라 손을 풀이하는 서술어이다.

(5) '무엇이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구문이며, '그림의 떡이다'는 '무엇이다'에 해당되므로 서술어이다.

(6)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인 문장에서 주어 이외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보어이므로 '그런 사람이'는 보어이다.